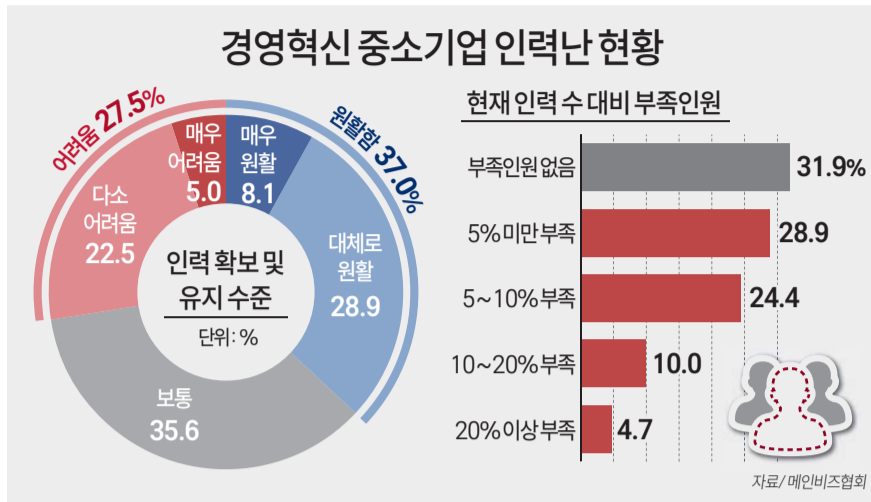


경영혁신 中企 10곳 중 7곳 ‘상시 인력난’... “정년연장 필요”

메인비즈協, 인증기업 360곳 조사
 中企 인력수급 원활도 53.1점 그쳐
 정년 연장엔 응답기업 89% 찬성
 숙련인력 유지 중심 대응체계 강조
 고용유지 지원·세제혜택 확대 주문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 제고 제시



경영혁신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상시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곳 중 1곳은 인력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인력수급 원활도’는 100점 만점에 53.1점에 머무를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연장에 대해선 88.6%가 찬성했다.

이같은 내용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메인비즈 인증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구조 재편과 정년연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2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1%가 상시적인 인력 부족 상태로 나타났다. ‘부족하지 않다’는 31.9%로 절반

에 못미쳤다. ‘10% 이상 부족’한 경우는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16.7%), 식품·섬유(20%)가, 비제조업은 정보통신업(23.8%)과 건설업(19.1%)이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했다. 특히 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10% 이상 부족’ 비중이 25.2%로 높아 소규모 기업일 수록 인력 기근 현상이 심각한 모습이다.

인력 공백(부족) 기간도 ‘6개월 이상’이 24.5%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포함해 ‘3개월 이상 지속’ 비중이 42.9%로

나타났다. 혁신기업 10곳 중 4곳은 인력을 뽑기 위해 3개월 넘게 기다려야하는 실정이다.

‘인력수급 원활도’가 50점을 겨우 넘고 있는 가운데 필요 인력 확보 상황에 대해선 ‘원활’이 37%, ‘보통’이 35.6%, ‘어렵다’가 27.5%로 각각 나타났다. 비제조업(22.2%)보다는 제조업(34%)의 인력수급 어려움이 더 많았다.

인력난 심화 원인은 ▲정년 인구 감소(39.2%)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38.4%) ▲인건비 부담(34.3%) 등 기

업의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숙련 인력의 기술·노하우 유지’(78.7%)가 1순위 이유로 꼽혔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우선되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기업이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생산성 구조 개편 등 임금체계 변화도 이뤄져야한다는게 대체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행정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숙련인력 유지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디지털 전환(DX),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S일렉트릭

직류 솔루션 앞세워

북미 데이터센터 공략

데이터센터월드서 DC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이 차세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로 주목받는 직류(DC) 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전시회에 참가해 직류 전력 솔루션과 배전 시스템, 자동화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은 20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월드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월드 2026(Data Center World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LS일렉트릭은 ‘한계를 넘는 스케일, 차이를 만드는 혁신(Innovation at Scale)’을 주제로 데이터센터 맞춤형 전력·자동화 토털 솔루션을 공개한다. 전력 부문에서는 데이터센터용 직류 솔루션을 비롯해 UL 인증 배전 시스템, 전력분배장치(PDU), 원격전력패널(RPP) 등을 선보인다. 자동화 부문에서는 데이터센터 공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고효율 인버터 H100과 콤팩트 인버터 SP100 등을 전시한다.

/원관희 기자 wkh@

LG이노텍, 유럽서 ‘차량용 와이파이7 모듈’ 수주

유럽 메이저 부품사에 1000억 규모
 내년 첫 양산, 글로벌 완성차에 탑재
 초고속·고신뢰 통신으로 시장 공략



LG이노텍의 최첨단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
 /LG이노텍

LG이노텍이 최첨단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을 유럽 메이저 부품 기업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제품 첫 양산은 2027년부터다. LG이노텍의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은 독일 전자부품 고객인 생산하는 AVN(Audio·Video·Navigation)에 내장된 형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최종 공급될 예정이다.

LG이노텍의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은 기존 와이파이6E(6세대 확장)보다 채널당 대역폭(전파가 이동하는

길이)가 두 배 늘어난 320MHz 초광대역폭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

제품에는 4K-QAM(직교진폭변조) 기술이 적용됐다. QAM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QAM 값이

높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와이파이7은 기존 대비 4배 높은 4096(4K) QAM을 지원한다.

또한 LG이노텍은 다중안테나(MIMO)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에 2개의 안테나를 탑재했다. 안테나가 한 개만 있을 경우 놓칠 수 있는 신호를 모두 잡아줄 수 있어,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LG이노텍의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은 쿼터의 통신칩, RF회로, 안테나 등 150여개의 부품이 내장돼 있다. 모듈의 크기는 신용카드의 6분의1 수준으로 작고 슬림하다.

나아가 이 제품은 영하 40℃부터 영상 105℃까지 극한의 외부 온도에서도 내구성을 유지한다.

LG이노텍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유럽·일본 완성차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AVN를 넘어 RSE(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TCU(자동차용 통신 장비), DCU(통합제어시스템) 등으로 ‘차량용 와이파이7 통신 모듈’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혁수 사장은 “특히 차량용 AP 모듈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 발생하는 등 모빌리티 솔루션 매출이 당분간 연평균 20%씩 늘어나며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LG이노텍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주행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일 레미콘업계, 협력 강화로 돌파구 모색

정례 간담회서 실질협력 모델 마련

한국과 일본 양국의 레미콘 업계가 정례 교류를 본격화하고 업계 현안 공동 대응 등에 나선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본전국생콘크리트공업조합연합회 대표단과 ‘2026 한·일 레미콘연합회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체결한 ‘2026 한·일 레미콘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일 레미콘 판매구조 ▲레미콘산업 구조조정과 시장안정

화 방안 ▲원자재 수급 및 가격제도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대응 ▲인력 수급 및 품질관리 시스템 관련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일본의 공동판매 운영사례, 납품대금연동제, 전국통합품질관리제도 등을 한국과 비교하고, 양국 간 제도적 시사점 공유를 통한 향후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배조용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양국 레미콘 산업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동전쟁 피해 中企에 5500억 추가 지원

중기부, 경영안정·수출지원 추경 편성

정부가 5500억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20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추가 경정예산으로 확보한 5500억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1500억원) ▲재창업자금(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경영 애로 사유로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신설했다. 중동 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일회용 주사기, 어망, 부표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신설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한 제한)과 경영 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 신청·접수로 지원 속도도 높인다.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뒷받침하고자 신시장진출자금 규모도 3164억원에서 4164억원으로 증액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존 수출국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때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한화큐셀

태양광 넘어 재활용까지

토털 솔루션 기업 도약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서 기술 총출동

한화큐셀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차세대 탠덤 셀, 에너지 관리, 폐모듈 재활용 사업을 선보이며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태양광 모듈 라인업과 에너지 시스템 솔루션,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한다.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시제품도 함께 공개해 차세대 기술 경쟁력도 내세운다.

전시장에는 주력 제품인 큐트론(Q.TRON)을 포함한 고효율 모듈과 영농형, 수상형 등 국내 시장 특성에 맞춘 유희부지 솔루션이 함께 배치된다. 큐트론은 N타입 웨이퍼를 적용한 탑콘(TOPCon) 모듈로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이다.

/원관희 기자